

흥가로 변한 나주 경열사·월정서원

문화재 상당수 문짝 떨어지고 벽 무너져 수십억 예산 투입하고도 보존·관리 허술



경열사



월정서원

나주시가 문화재 보존 사업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내에 산재한 문화재가 허술하게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의 목조건물 문화재가 소화가 하나 없거나 비치된 소화가 소화액이 빠지고 심하게 노후돼 화재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며 심각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나주시에는 현재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국가지정 문화재 29종류 ▲도지정 문화재 37종류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29종류 등 총 117종류의 지정 문화재가 있다.

나주시의 대표적 명산인 금성산 자락에만도 수백m 간격으로 국가지정 보물 및 도지정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의 문화재는 문짝이 떨어지고, 벽이 무너져 흥가로 변하고 있다.

도 지정 문화재인 경열사의 경우 문짝이 떨어지고 창호지가 찢어져 너덜거렸다. 또 마당에는 미처 풀베기 작업을 못하고 겨울을 맞은 듯 잡초가 아직도 무성하다.

또 김광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항 등 '동방 5현'이 모셔진 월정서원은 담장이 크게 금이 가서 벌어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듯하다. 또 참문과 창호지는 깨지고 찢기고

천장에 흙반이와 담장에 기와는 여러 곳이 유실된 상태다.

특히 김계휘·심의결·정철·홍천경 등을 배향한 월정서원은 대부분에 창살 문이 떨어져 나가고 벽이 무너진 채 흉가로 방치돼 주민들에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열사와 월정서원은 소화가 하나 비치돼 있지 않고, 도 지정문화재인 월정서원과 미천서원은 소형 소화가 몇 개가 비치돼 있지만 분말이 없거나 제 기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후된 것들뿐이다.

주민 (58·노안면 금안마을)씨는 "마을에 문화재가 있지만 담이 무너지고 문짝들이 다 떨어져 나가 흉물스럽고, 밤에는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지나가기가 겁이 난다"며 "나주시가 시내 주변에 문화재는 대체로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시외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문화재가 너무 많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소방시설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월정서원은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놓고도 정비하는데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업무를 못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u@

'호남의 금강산' 강진 석문공원, 국민관광단지로

2015년까지 70억 투입 구름다리 등 편의시설

수려한 기암괴석이 절경인 강진군 도암면 석문공원 일대가 오는 2015년 국민관광단지로 탈바꿈한다.

강진군은 2013년부터 3년간 70억 원을 투입해 석문공원 주변의 다산초당과 백련사, 정조바위 등 역사적 주제를 바탕으로 만덕산과 덕룡산, 주작산을 연계하는 차별화된 등산로를 조성한다.

또 금강산에 비견할 만한 석문계곡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 휴양 시설, 물놀이 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석문공원 일대 33만㎡(10만 평)에 대한 개발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9월 권 관리계획변



경에 착수하고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올해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면 분야별 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만덕산과 덕룡산의 분기점인

석문계곡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수려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등산로 19.7km를 조성하고 둔치를 활용해 물놀이 시설과 휴양시설,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캠프장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나주시 백호 임제 선생 재조명 활발

조선 중기 시인이자 문신인 백호(白湖) 임제(1549~1587) 선생의 문학사상 등을 기리기 위한 심포지엄이 나주에서 열렸다. 또 각종 유물과 문헌 등이 전시된 문화관이 조만간 시립박물관을 거쳐 내년 선생에 대한 조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나주시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은 오는 30일 나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백호 임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카이 겐지의 백호 임제 관련 연구 활동의 재조명(노자키 마츠히코 일본 오사카 시립대 교수) ▲중국에서의 백호 임제 문학 사상연구(황원중 중국 상해 푸단

대학 교수) ▲원생동유록과 임제(신해진 전남대 교수) ▲백호 임제 한시의 미적 특질(고려대 박중우 교수) ▲원생성 자원의 활용 방안과 백호 문학관(전남 도립대 최현선 교수) 등 연 구논문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나주시가 임제 선생의 고향인 다시면 회진리에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지난 8월 완공된 백호문화관이 전시물 설치 마무리와 함께 조만간 시립박물관을 거쳐 내년 선생이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백호문화관은 대지 3500㎡, 연면적 870㎡, 지상 3층 규모로,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문화사랑방·사무실 대 교수) ▲중국에서의 백호 임제 문학 사상연구(황원중 중국 상해 푸단

영산강 상류주민 직접지원비 가구당 15만원씩 인상될 듯

영산강 상수원 상류 주민의 숙원 사업인 상류 주민 직접 지원비가 가구당 15만원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상은 영산강 상수원 상류 주민들이 재산권 행위 제한에 대한 지원비가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주민 간담회 개최와 국정감사의 지적을 통해 직접 지원비 인상을 이끌어 낸 것이다.

주민지원 사업비는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로, 가구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게는 최대 120만원, 수변구역 주민에게는 최대 85만원이 지급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담양지역 도시가스 공급 본격화

담양지역에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담양군과 (주)해양도시가스는 지

난 4월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했다. 1차분 총사업비 116억을 50 : 50 비율로 투자해

올해 초 첫 공사를 시작해 최근 담양읍 오계리에서 공급밸브 오픈식을 갖고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했다.

담양지역 도시가스는 백동리대세대 주택을 포함한 천천아파트 등 공동주택 1192세대에 1차 공급된다.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과 금성

농공단지 등은 올해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차 배관공사가 완료된 담양읍 주변 단독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전 북

문화예술체육행사 민간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군산시 "성과 없을때 지원 중단"

군산시는 내년부터 문화·예술·체육행사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성과없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시 문화체육과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예술·체육관련 보조금의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집행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사업담당 부서→사업검토·보조금교부 및 보조사업 평가→사업지원부 결정 등의 운영시스템으로 해당사업별 평가표를 작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다음 년도 보조지원에 반영

하게 된다. 성과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계속 지원, 80점 미만~60점 이상이면 지원 감축, 60점 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보조단체별 행사 수준 및 시민 만족도 분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물론 성과평가 결과 90점 이상 고득점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실적, 시민 만족도 등이 월등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집행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 및 사회복지보조예산 지원사업, 1회성 행사 및 소규모 행사와 군산시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친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농·산·어촌 유학 1번지'로

道, 전국 첫 지원 조례 제정... 유학지원 명문화

전북도가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유학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북도가 농촌유학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 논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는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북도 농·산·어촌 유학지원 조례'를 전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는 조례에서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촌유학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유학을 활성화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유학 활동가와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유학협의

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6월 도시민에게 농촌 유학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열고 '농촌유학 페스티벌'을 여는 등 도시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학교, 유학활동가, 지역사회 간의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살아나고 지역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소재지 정비사업 국비 250억 확보

순창군은 올해 순창읍,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5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 신규사업으로 쌍치면과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 등 2년에 걸쳐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쌍치면과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4년동안 기초생활기반확충과 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 지식경제부 우수특구 선정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가 전국 147개 가운데 우수특구로 선정돼 지난 22일 과천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과 함께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강수 고창군수를 비롯해 타 시·도 우수특구 자치단체장 12명과 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는 2004년에 지정됐다. 지난 2008년 2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창군복

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 고창군은 1·2·3차 산업이 융합된 제6차 산업으로 발전을 위해 6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복분자 클러스터 타운을 부안면 용산리에 조성 중에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오는 2014년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가공·유통·관광 및 R&D 등 역량 강화와 복분자 기능성 효능 및 지적재산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남원 목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이원주 남원시장(오른쪽에서 3번째)과 관계자들이 최근 남원시청 강당에서 제15회 목공예대전 대상작인 '나전목단문합' (배광우 작·경기도 성남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단 신

남원시 보건소 감염병관리 최우수기관 표창

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2012년 감염병관리 평가대회에서 감염병분야 기생충사업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원시 보건소는 그동안 기생충 감염 취약지역에 대한 장래 기생충 감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 섬진강 주변 주민 2090명에 대하여 감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5년전에는 기생충 감염율이 34.1%였으나, 올해에는 4.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 과학대·두메산골, 치유음식 공동개발

전북 과학대학교(총장 김동준)는 26일 사회적기업 '두메산골 영농조합'과 치유·건강음식(힐링푸드)의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협약했다.

양 기관은 대학 연구진과 장비를 활용해 힐링푸드 연구 및 개발, 직원 교류 및 연구, 취약층 지

원 등을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어려운 주민을 살피면서 인재 육성, 우수 인력 공급, 산학협력 등을 충실히 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라며 지역 기업과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무인 단속 카메라 이용 주정차 단속

김제시가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 계획이다.

시는 시청회전 로터리, 김제 전통시장 사거리, KB국민은행, 시외버스 터미널 등 4개소에 주·정차 위반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11월 부터 12월 말

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으로 혼잡했던 시가지 교통이 원활해지고 주차민원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

고창군,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청렴도 측정에서 고창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05년부터 8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특히 내부청렴도에

서 8.94점을 획득하며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그동안 군은 부패방지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리플렛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해왔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